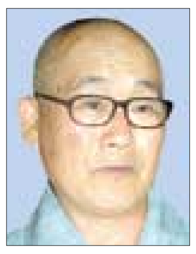
청주·청원 불교 이끄는 주역들

불교의 사회화 앞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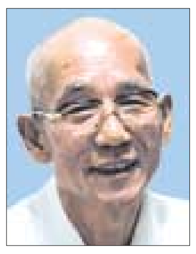
범추 스님

청주 풍주선원 선원장
충북 참여연대 공동대표

청주불교가 나름대로 사회적 위상을 정립하기까지는 바로 이 스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불교의 사회 참여를 강조하며 활발한 사회활동을 벌여 온 청주불교의 큰 스님. 충북 참여연대 공동대표, 충북 북부복지회 이사, 충북 바르게살기 이사 등을 맡아 불교의 사회화에 앞장섰다.

'주는 불교'를 표방한 포교로 지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데, 25년간 사찰을 학생들에게 개방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 30여명의 판·검사를 길러내기도. 오랜 동안 교도소와 군 포교 활동도 해왔다.

불교회관·신협 '포교 동력'



보안 스님

청주 연화사 주지
태고종 원로의원

50년 세월 동안 청주불교를 지켜 온 이 지역 불교의 거목. 70년대와 80년대에 청주청원불교사암연합회장을 두 번이나 역임하고, 불교신협(삼보신용협동조합)을 창립하고 이사장을 맡았는가 하면, 1979년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불교회관을 짓는 등 지역불교 발전을 위해 많은 공을 세웠다. 20년을 넘게 청주교도소소년원 종교위원을 맡아 교화활동을 해왔으며, 10여 년 동안 청주 서부경찰서 경승으로도 활동 중이다. 청주지역 태고종 스님들의 모임인 원융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현재 태고종 원로의원이다.

복지불사로 전방위 포교

원봉 스님

청주 보현사 주지
태고종 중앙종회 부의장

"이젠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하지만 스님의 그늘은 크기만 하다. 스님의 뜻과는 달리 아직도 포교일선에서 더 지도해달라는 지역불교의 요청이 많다. 보안 스님과 함께 충북불교회관과 불교신협을 발족하는 등 청주불교에 남긴 자취는 지금 지역불교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다. 어린이 포교에 관심이 많아 1997년 보현사 부설 보리수어린이집을 개원한데 이어 최근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아동시설을 수탁, 내년에 보현어린이집을 개원할 예정이다. 현재 태고종의 중앙종회 부의장과 중앙복지원장, 종책계획원장을 맡고 있다.

방송·칼럼 왕성한 활동

일봉 스님

청주 광덕사 주지
청주청원사암연합회 수석부회장

팔방미인이라는 별칭이 어울리는 스님. 청주교도소 종교위원으로 교화활동을 벌이고, 군부대를 다니며 위문법회도 한다. 청주불교방송에서는 6년째 프로그램을 맡고 있고, 충청일보와 동양일보 등 지역 신문에서는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원만한 성격으로 청주청원사암연합회 수석부회장을 맡아 지역불교 화합을 위해서도 애쓰고 있다.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도 하고 있다. 유치원을 건립해 어린이 포교에 헌신하겠다는 뜻도 가지고 있다.

공부하며 포교기반 다져

각의 스님

청주 용화사 주지

온화한 인품에 합리적인 사고가 돋보인다.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를 졸업,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재 중앙승가대 대학원에서 불교학을 전공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박사과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탄탄한 실력을 갖추고 있어 청주불교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재목으로 꼽히고 있다. 한약방을 운영하다 출가, 한약사로서 스님들을 위해 봉사한 경력도 있다.

용화사 주지로 부임한 지 1년여 밖에 되지 않았지만 사보를 만들고 노인대학과 문화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학업과 포교를 병행하고 있을 정도로 공부와 일 욕심이 대단하다.

현대감각 돋보이는 '차세대'

현진 스님

청주 관음사 주지

청주불교의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고 있는 인물. 지역불교 관계자들은 "이제 청주불교가 달라지게 될 것"이라며 현진 스님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관음사가 청주에서 차지하는 비중 때문이 아니라 뛰어난 현대감각, 해인사 포교국장을 하면서 쌓은 포교 역량, 그리고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는 문화 마인드 등 삼박자를 고루 갖추고 있기 때문. 2003년 12월 관음사 주지로 부임하자마자 기본교육 강좌를 마련했을 정도로 신도기본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포교효과를 위해서는 '튀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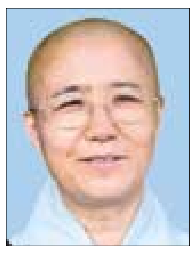
친환경 신행과 생활강조

덕산 스님

청원 혜은사 주지

"아프지 않았다면 부처님 법도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1989년 혜은사에 온 이후 끊임없이 공부하고 기도에 몰두했다. 공부도중 신장이식수술을 받는 등 몇 차례 위기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자신이 그랬듯이, 신도들에게도 늘 공부를 강조한다. 건강이 좋지 않지만 경전강의를 직접 할 정도로 신도교육에 애착을 가지고 있다. 지난 8년간 청주운불련과 대불련 법회를 이끌었고, 군 포교 활동도 했다.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아 생협을 조직, 신도들에게 자연친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지역축제 다양화 선도



무진 스님

청주 화장사 주지

40년 가까운 세월을 한 곳에서, 한 가지 목표를 위해 산다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일까. 그동안 많은 것을 이뤘다. 화장사를 사찰다운 사찰로 일구고, 화장사를 중심으로 한 지역축제도 만들고…, 화장사를 지역의 중심사찰로 만들겠다는 꿈은 어느 정도 이룬 셈이다.

그런데 이제부터 시작이란다.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다는데. 천불전과 일주문도 짓고, 납골당도 만들고, 작년에 개최했던 '산사 문학의 밤'도 더 새롭게 하고, 불교를 생활화 할 수 있는 법회도 만들고, 복지사업도 하고…. 오갈 데 없는 5명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

문화가 있는 불교 "느낌이 좋다"

가침박달 꽃 축제·산사 문학의 밤 등 지역민에 인기 상승

'보여주는 불교' '공부하는 불자' 화두로 포교·수행 인프라

충북 청주·청원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제는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야 불교가 바로 선다.'

청주·청원 불교가 '들려주는 불교'에서 '보여주는 불교'로, '기복 불교'에서 '공부하는 불교'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변하지 않고는 존립할 수 없다는 절박감이 곳곳에서 묻어난다.

'보여주는 불교'는 흑백 시대를 마감하고 컬러 시대를 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다시 말해 평면적인 포교에서 입체적이고 독창적인 포교로 시민에게 다가가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목표는 섰다.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다. 여기에 선택의 여지는 없다. 방법은 오직 하나, '문화'다.

제대로 가르쳐야만 불교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도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공부하는 불자'를 화두로 삼았다. 불교인재를 양성하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교육의 도시이자 문화의 도시인 청주에서 '문화'와 '공부'를 불교 중흥의 방편으로 삼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청원군은 행정구역상 청주시와는 별개의 군으로 존재하고 있으나 청주와 바로 인접해 있는데다, 하나의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어 편의상 '청주불교'로 통칭한다.

금강경 강의를 들으며 '공부삼매'에 빠져있는 혜은사 신도들.

#문을 크게 열고

현재 불교계가 중심이 돼 개최하고 있는 지역 문화행사는 영규대사 추모제 하나 뿐. 대표적 지역축제인 직지축제가 있기는 하나 불교적 색채만 띨 뿐 사실상 불교계의 참여는 미미한 실정이다. 직지를 만들었던 불심이 흐르는 곳에서, 그 옛날 중원 불교문화권을 형성했을 정도로 불교가 융성했던 곳에서 고작 한 개의 문화행사로 '잠자는 불심'을 깨울 수는 없는 일.

따라서 청주의 각 사찰들은 음악회, 강연회, 각종 경연대회 등으로 지역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지역축제에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불교적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올해 5월 '제2회 가침박달 꽃 축제'를 열었던 화장사는 이 축제를 명실상부한 지역축제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화장사 일대에서만 서식하는 가침박달 꽃은 청주시 천연보호림으로 지정돼 있는 꽃. 10일간 열리는 행사인 만큼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해 계층과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마다 산사음악회를 열고 있는 관음사와 지난해 가을 처음으로 '산사 문학의 밤' 행사를 열었던 화장사는 두 행사를 지역축제로 자리매김 시키기 위해 올해부터는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지역민들이 쉽게 호흡할 수 있는 메뉴를 선보이겠다는 각오다.

또 관음사 등을 중심으로 한 일부 사찰들은 청주시가 열고 있는 도자기 축제나 고인쇄 엑스포 등의 행사를 불교계와 연계한 축제로 개최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문화행사와는 조금 다르지만 문화 프로그램을 도입, 몸으로 느끼면서 불교를 알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사찰들도 늘고 있다.

청주를 대표하는 사찰 관음사. 내년 3월 청주불교 문화대학 개원을 준비 중이다. 단순하게 불교지식을 주입하는 방식에서 탈피, 불교 미술, 문화, 문화재, 음악 등 불교문화를 통해 부처님 사상과 교리를 배울 수 있는 강좌를 선보일 예정. 예를 들면 석탑을 공부하면서 석탑에 깃든 의의와 역사적 의미, 그리고 문화적 가치를 통해 불교를 배우는 것이다. 물론 서예나 다도 등 일반문화와 관련된 강좌도 마련된다. 불교학당도 계획하고 있는데, 아이들에게도 불교문화와 불교적 심성을 심어줄 생각이다.

화장사는 올 8월부터 매주 토요일 선무도와 요가, 스포츠마사지 등의 프로그램으로 생활문화 강좌를 열며, 대한불교수도원은 다도강좌를, 용화사는 서예 및 국악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배우고 행하고

사찰 수 300여 곳. 적은 수가 아니다. 하지만 사찰을 표방한 점집은 이보다 훨씬 많다. 기복적 신행이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몇몇 사찰들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이 같은 기류가 확산조짐을 보이면서 청주불교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가장 많은 법회활동을 벌이고 있는 대한불교수도원은 1년 전부터 매주 금요일 경전강독 강좌를 마련했고, 풍주선원은 최근 완공한 수련원을 종합교육관으로 활용해 불교인재양성의 산실로 키우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작년 말부터 신도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관음사는 오는 9월에 경전반을 개강해 신도교육에 적극 나설 계획이고, 3년째 경전 공부반을 운영해 온 혜은사는 깊이 있는 강의를 계속 이어나갈 생각이다.

보현사는 보리수어린이집과 보현어린이집 원생들의 학부모들에게 각종 홍보물을 통해 불교교육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안심사는 수행도량 이미지를 그대로 살려 불자들의 수행욕구를 자극하겠다는 방침이다.

#넘어야 할 산

이런 계획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멀리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문화와 교육은 '수입' 보다는 '지출'이 우선일 수밖에 없다. 조금 하다가 잘 안된다고 포기하면 오히려 부작용을 부를 가능성이 크다. 어느 정도 '출혈'을 감수하는 인내가 필요하다.

조계종과 태고종으로 나뉘어져 있는 지역불교 분위기를 통합하는 것도 과제다. 현재 조계종 스님들의 모임인 영산회와 태고종 스님들의 모임인 원융회가 각각 운영되고 있는데, 분열은 공멸이라는 인식아래 화합하고 협조해야만 한다. 특히 청주가 직지를 간행했던 불심이 흐르는 곳이라는 역사의식과 문화의식, 그리고 주인의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다.

청주·청원=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미륵불과 약사여래불이 눈길을 끄는 광덕사.

안심사는 잘 가꿔진 정원같은 예쁜 절이다.

용화사 용화보전의 석불장군.

돋보기

광덕사 시원한 바람, 우렁찬 매미 소리. 요사채에 앉아 있으면 세상이 내려다보인다. 작지만 편안하고 포근한 절이다. 8m 높이의 미륵불과 약사여래불을 보면 평화로워지는 느낌이 든다. (043)258-3282

대한불교수도원 시내에서 조금 벗어난 우암산 초입에 있는 절. 신도들의 신행활동이 활발해 생동감이 넘친다. 넓고 시원한 느낌을 주는 마당과 주변의 숲이 전각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043)256-2655

안심사 예쁘다. 숲 속 사이로 난 길을 오르면 파란 하늘과 맞닿은 전각, 그 앞을 수놓은 울긋불긋한 꽃들, 꽃잎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마당, 그 마당 한 켠의 거목.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곳. 한여름에도 이런데 가을에는…. 청원군 남이면에 위치. (043)260-6165

풍주선원 숲으로 둘러싸여 공기가 맑고 조용한 분위기 일품이다. 수행하고 공부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곳. 동굴 속에서 나오는 지하수가 부처님 앞을 흐르도록 설계된 법당은 보는 이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043)256-5585

용화사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고풍스런 멋을 풍기는 절. 미륵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등 7분의 보살과 그 뒤로 약사여래부처님, 미륵부처님, 석가모니부처님이 서 있는 용화보전의 석불상군(보물 제985호)이 눈길을 끈다. (043)274-2159

화장사 자태가 곱고 아름다워 부처님의 자비심을 연상케 하는 가침박달 꽃. 5월이면 화장사는 가침박달 꽃으로 꽃 대궐을 이룬다. 이밖에도 많은 야생화가 피는 곳으로 꽃의 향기를 만끽할 수 있는 절. (043)255-5758

현암사 동국여지승람이 '은은한 독경소리와 붉게 타들어가는 석양의 아름다움을 보고 많은 선비들이 시를 읊던 곳'으로 소개할 만큼 경관이 빼어나다. 인근에 청남대와 대청호수가 있어 관광지로도 유명하다. (043)932-2749